



안녕하세요, 백선진 수녀입니다. 저는 1990년에 입회하여, 소명여고 국어 교사, CTU 신학공부, 은티 생태공동체, 그리고 16년 동안의 양성 소임을 거쳐, 지금은 전주 동산동 성당에서 본당 사도직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마더 씨튼께서는 춤추기를 좋아하셨다는데, 지극히 내성적인 저는 입회 때까지 제가 다른 이들 앞에서 춤을 춘다는 것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입회 후, 파티가 열릴 때면 동기들과 부채춤, 소고 춤, 그리고 꼭두각시와 발레까지 어설프지만 열심히 추었습니다. 그러다가 오광심 수녀님께서 한국에 전례무를 도입하실 무렵, 양성 사도직을 맡고 있던

저는 전례무에 동참하면서 하느님께서 제 안에 숨겨두신 춤끼(!)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춤을 추었습니다. 춤은 삶의 또다른 언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례무를 출 때, 파르르 떨리는 긴장된 손끝과 하늘 향한 눈길에도, 드높이 펼쳐졌다 내려오는 길다란 천 자락과 내딛는 발끝 하나에도 온 마음을 담습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는 춤사위 하나하나로 전례에 참석하는 이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며, 내면의 바람결로 설렘과 감동의 춤을 함께 추게 하

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향의 연기로 정화하며 하느님께 온전히 들어올리는 분향의 순간에는 늘 경건한 떨림이 있습니다. 아직도 제게 선명한 떨림으로 기억되는 장면은 성탄 때 아기 예수님을 안고 어르면서 하늘 높이 우러러 구유에 봉헌하던 순간입니다. 그 순간 저는 아기 예수님을 봉



헌하는 어머니요, 성부께 당신 자신을 바치는 예수님이었고, 그 자리에 함께 한 모든 수녀님들의 마음을 봉헌하는 빈 구유였습니다.

저는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시드니 카터의 노래처럼 아름다운 신적인 춤(Divine dance) 속에 하나가

되시는 주님의 춤꾼으로 기쁘고 힘차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춤의 왕, 너 어디 있든지 나는 춤 속에 너를 인도하리라." (Sydney Carter)





Hello! Sisters! I am Sister Paek, Son Jin. Entering the community in 1990, I taught Korean language at So-Myong Girls' High School, studied at CTU, ministered at Eun-ti ecological village, worked as formation director for sixteen years, and now I am working at Dongsan-dong Parish in Jeonju.



We know that young Mother Seton loved to dance. For me, an extreme introvert, I did not imagine myself dancing in front of others. It wasn't until entering the community that I began to do fan dancing, Sogo (Korean little drums) dancing, puppet dancing, and even ballet. I was not good at dancing in the beginning; however, I did my best to perform the dance with other sisters whenever the community celebrated events. As a formator living at the Provincial House, I had the opportunities to dance with Sr. Oh, Kwang Shim. Back then, she had just introduced liturgical dancing to the Korean Province. Performing



liturgical dance when I was asked to join, I began to find my dancing talent given to me by God and hidden for a long time. Now I think dancing is another language of life.

When I perform liturgical dance, I pour my whole heart in finger movement, in the eyes gazing at sky, in holding and shaking the

long cloth with my hands, and in my every step moving forward. God seems to bring together the hearts of those who attend the liturgy, and makes me



dance with fluttering and inspiration by the wind of my inner heart. And there is always sacred moment in offering incense by lifting my hands and purifying my heart. I still remember the Christmas day when I danced to place baby Jesus in the crib with the motion of offering and lifting Him to God. On that moment, I was Jesus who offered Himself to the Father and Blessed Mary who offered her only son to God. I also was the empty crib being filled with the hearts of the Sisters.

I want to live joyfully and vigorously as the Lord's dancer who is united with Him in Divine Dance, like the one who is depicted in the song of Sydney Carter. "I am the lord of dance, wherever you are, I will lead you in the dance."

